

부끄러워서 찾은 핑계

金 守 業

(慶尙大 國語敎育科)

나이가 들수록 남을 가르친다는 것이 부끄러워진다. 나는 아무리 해도 ‘바담 풍’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점점 똑똑히 깨달으면서도 학생들에게는 계속 ‘바람 풍’ 하라고 말한다는 것이 양심에 썩스러운 것이다. 아파 오는 양심을 피해 보자고 술을 마셔야 하는가 아니면 ‘바람 풍’ 하라는 소리는 빼고 그저 가치 중립적 지식의 소매상 노릇이나 하고 말 것인가? 이런 수준의 피로움과 부끄러움은 교단에 서서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공통 필수 과정(?) 일 것이다.

그런데 근년에 들어서 한결 견디기 어려운 피로움은 어느새 스스로 깨쳐서 똑똑하게 ‘바람 풍’하기를 시원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바담 풍’밖에 못하고 있는 나를 측은한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선을 마주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보내는 은밀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은 여러 가지 복잡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리가 왜 선생님들의 단감한 처지를 모르겠습니까? 번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앞장 서 행동하지 못하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 피로워 하시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교수라는 신분이 얼마나 존경받는 것인데

거기서 쫓겨나서도 안 되고, 또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리 보전에 연연하지 않을 수 없는 선생님을 이해하여 드릴 터이니 그냥 우리가 하는 일에 못 본 척하고 가만 계십시오”, 심지어는 “알 것 다 알면서 병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서글픈 지식인들의 무기력여! 동정 불금이로소이다. 우리가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은 배워서 따르려는 뜻이 아니라 따르지 않겠다는 각오를 굳히기 위해서입니다” 등등 모두가 견디기 심히 피로운 시선들이다.

옛 성현들은 젊은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세 가지 즐거움 가운데 하나라고 했는데 여쭙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부끄럽고 피로운 일이 되고야 말았을까? 참으로 억울하고 한심하다. 결국 말하자면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해야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똑똑하게 하지 못하고 망설이거나 얼버무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진리와 표리 관계를 이루어 있는 정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려고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전개하기 일쑤였고, 가치 중심적인 판단은 일찌기 포기하고 언제나 상황 의존적인 판단에 급급하면서 가치 중

립주의 철학을 선전하는 데에 열을 올렸던 때문이다. 어찌서 이렇게 되었는데? 내 탓인가 아니면 남의 탓인가? 아무래도 내 탓이라고 자인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물론 젊고 활기찬 군인들이 정권을 손에 쥐고 민족 중흥의 새 역사를 창조한다면서 혹은 선진 조국을 창조한다면서 더러는 '예'를 '아니오'라고 말하도록 강요하고 때로는 '아니오'를 '예'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때를 쓴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사태를 모두 결정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아니었다. 내가 지레 겁을 먹고 눈치를 술술 살피고는 그들이 '예'하기를 원하는 듯하면 미리 '예'하고, '아니오'하기를 바라는 듯할 때에는 알아서 '아니오' 해주었던 것이다. 참다운 민족 중흥을 이루어서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려고 하면, 진실로 조국 선진화의 길을 창조하여 태평양 시대의 주역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는 철저한 진리 수호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비겁하게도 그 정신에 투철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부끄러운 비밀을 불행하게도 우리 학생들은 모두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 견디기 어려운 피로움과 부끄러움에 빠져 있는 나의 처지를 앞으로라도 어떻게 하여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길은 빠안하다. 어떠한 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물 고문을 당하고 드디어는 베드로처럼 십자가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목숨이 끊어지는 지경에 이른다 하더라도 결코 '아니오'를 '예'라고는 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진리만이, 오직 진리만에 민족 중흥이고 선진 조국이고 또 무슨 사회 안정이고 하는 그 거창한 명제들을 참으로 이룩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길이 있다는 신념에 학자로서 또는 교육자로서의 목숨을 걸고 단호히 '예' 할 곳에서 '예'하고 '아니오' 할 데에서는 '아니오'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것은 의인이나 열사거나 적어도 거기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어려울 듯하다. 언제나 소심하고 때로는 비겁해지기도 잘 하는 나같은 보통 사람 으로서는 도무지 자신이 없고 임두조차 내기 어려운 주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던 어쩔 것인가? 소심하고 비겁해지기 쉬운 나라도 마음 폭 놓고 '예'와 '아니오'를 떳떳하게 하도록 허락해 주는 세상이 되면 그만이다. 그것은 '허락해 주는' 것이 애초에 아니다. 간섭하고 침해하던 손길을 거두어 가고 본래 있었던 대로 회복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조물주도 간섭하지 않으므로 하고 부어한 그 고귀한 자유를 서로 존중하면서 누구나 양심의 명령에 따라 '예'와 '아니오'를 거침없이 말해도 좋은 그런 세상이 되면 그만이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태이고 억지로 예를 써서 만들어야 하는 세상도 아니기 때문에 권세와 재물과 명예를 손에 쥐고 이기적인 계산에 사로잡혀 있는 소수 사람들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인 듯하다.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이 움터 오르도록 기도하며 기다려 볼까?

권력과 재물과 명예라는 도깨비에 홀려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제대로 보일 수 없는 소수의 사람들이 당장에 대오각성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시킴에 따라 말단에서 심부름하는 군인과 경찰과 공무원들이라도 몽둥이를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전기 찜질을 예사로 하지 않고 최루탄을 멋대로 쏘아대지 않고 그 끔찍한 대검과 M16 소총질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까?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차마 이런 짓은 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 될 수는 없을까? 따지고 보면 그들이 모두 내 아우이거나 자식이거나 사촌이거나 당길이거나 이종의 재종이거나 생질이거나 고종의 고종이거나 외사촌의 자식이거나 처남의 자식이거나 그런 청년들인데 어떻게 사회 안정이니 치안 유지니 하는 명분을 내세워

그들이 시킨다고 하여 착한 사람들을 불순분자라고 하면서 폭행과 고문을 자행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할 수가 있을까? 이들이 모두 사람으로서의 감성과 이성을 건전하게 지니고 아무리 상관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제 스스로의 영혼조차도 파괴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폭력에 가담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나같은 비겁장이라도 양심에 따라 편안하게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함으로써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또 새로운 자책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결국 무섭고 끔찍한 이 폭력들은 인명의 고귀함을 알지 못하는 시대의 풍조에 말미암아 있고, 인명 경시의 이 시대적 풍조는 다분히 나도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이 책임져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사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목숨, 어떤 것과도 꼭 같지 않고 절대적이고도 고유하게 태어났으며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오직 한번만 허락된 가치 중의 가치요, 의미 중의 의미인 인간의 목숨에 대한 근래 우리 사회의 인식은 참으로 기막힌 지경에 이르른 것이 아닌가 한다. 인권, 인권하지마는 그 인권이란 것은 인명의 고귀함을 확고하게 뒷받침해 주는 철학이 없을 때에 하나의 공염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명의 고귀함은 모름지기 그 처음과 끝이 인간적 영역을 넘어서, 접지하고 거두어 가는 삼신이든 조왕이든 초월적 존재를 인정할 때에만 그 바탕이 마련되는 것이거니와, 근래 우리 사회는 그 바탕을 실천적으로 상실한 채 인명 경시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 가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가족 계획이니 인구 조절이라는 미명을 내세워 자궁 속의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는 일을 나라가 권장하기도 하므로 자식을 죽인 부모가 아무런 죄 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

다. 한 해에 100 만 명을 훨씬 넘는 태아를 부모와 산부인과 의사들이 학살하고도 능률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고문 행위를 근절시키고 폭력을 추방하지는 주장을 인간의 존엄성을 내세워 부르짖을 수 있는가? 이 몇 년 사이 중·고등 학생들이 성적 몇 점 또는 석차 몇 등 때문에 수십 명이 자살을 했는데도 아무런 소동도 일어나지 않고 문교 당국조차 놀라거나 괴로워하지 않는 듯하다. 입에 담기가 몹시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하나 근년에 부도덕한 정권에 항거하거나 구조적 사회악을 깨뜨려 보려고 꽃다운 젊은이들 수십 명이 살신성인의 길을 택했는데 그 명령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거기에도 이 시대의 인명 경시 사조가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숨길 수가 없다. 간디의 단식은 거대한 대영제국을 뒤흔드는데 수백 명의 성적자와 수도자와 사회 원로들의 단식이 단 한 사람의 장관도 흔들리게 할 수 없는 것은 무슨 차이 때문인가? 인명의 고귀함이 망각되어서 사람의 값이 한없이 폭락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그 목숨을 담보로 걸고 상대방의 양보를 구한다는 일이 애초에 계산 착오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기막힌 현실은 생명의 근원인 초월적 존재에 대한 불신이라는 시대적 풍조가 커다란 원인이 되겠지마는 게다가 우리의 교육이 적지 않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의 교육은 광복 이래 오늘날까지 줄곧 사람을 도구로서 보고 있다. 이 사실의 가장 단적인 증거는 교육법 제1조에 명시된 우리 교육의 목적이다. 그것은 문법적으로 까다로운 하나의 월로 표현되어 있는데, 잠시 그 구조를 분석해 봄으로써 이에 담긴 속 뜻을 밝혀 보기로 하자.

P) : 교육은 A를 목적으로 한다.

A) :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B하여 C하게

한다.

B) : ① 인격을 완성한다.

② 자주적 생존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한다.

C) : ① 국가 발전에 봉사한다.

② 인류 공영의 이상에 기여한다.

Z) : 홍익 인간의 이념 아래

P는 따질 것이 없다. Z는 부사구로서 그것이 어디에 걸리는가에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으나, 속 뜻에는 아무런 시비를 자아낼 여지가 없으므로 그 또한 별 문제가 없다. 문제의 핵심은 A에 있다. P의 문맥으로 보아 A는 바로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A에 따르면 B는 수단이고 C야말로 진정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① 인격을 완성하고 ② 자주적 생존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는 것을 수단이나 과정으로 하여, 다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① 국가 발전에 봉사하고 ② 인류 공영의 이상에 기여하게’ 하는 것을 우리의 교육은 목적으로 삼고 있다. 모든 국민은 국가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존재, 인류 공영의 이상에 기여하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 교육법의 국민관임이 드러났다. 여기에 심각한 시비거리가 숨겨져 있지 않은가? 사람이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인가? 사람이 어떤 이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방편적 존재인가? 교육이 인간을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로 보지 않고 다른 가치(국가 발전이나 인류 공영이 아니

라 심지어 하느님일지라도)를 위한 종속적 존재로 볼 때에는 참으로 무서운 현상이 빚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교육법 제1조’는 마땅히 고쳐야 하고, 이 목적을 전제로 하여 마련되어 있는 현행의 교육법은 전반적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절대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것이 사실로서도 이치로서도 진리임에 틀림없다는 믿음이야말로 마땅히 인간 교육의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교육의 목적도 따라서 절대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발휘하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의 교육법 제1조는 ‘교육은 모든 국민이 각자의 인간성을 완성하게 하고, 자주적 생존 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우리 국민의 출생 의의가 ‘민족 증흥의 역사적 사명’에 못 박혔다고 강변하고 있는 ‘국민교육헌장’도 이제는 폐기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그리고는 우선 각급 학교의 교실에서부터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가르침으로써 이 사회에 만연한 인간 경시의 풍조를 씻어내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화급한 일인 듯하다. 사람의 존엄성이 진실로 공인되는 바탕 위에서만 그 존엄성의 수호와 고양에 봉사하고 기여할 여타의 모든 제도 와 조직, 정치와 경제, 문화와 관습을 올바르게 고칠 수 있을 것이다. *